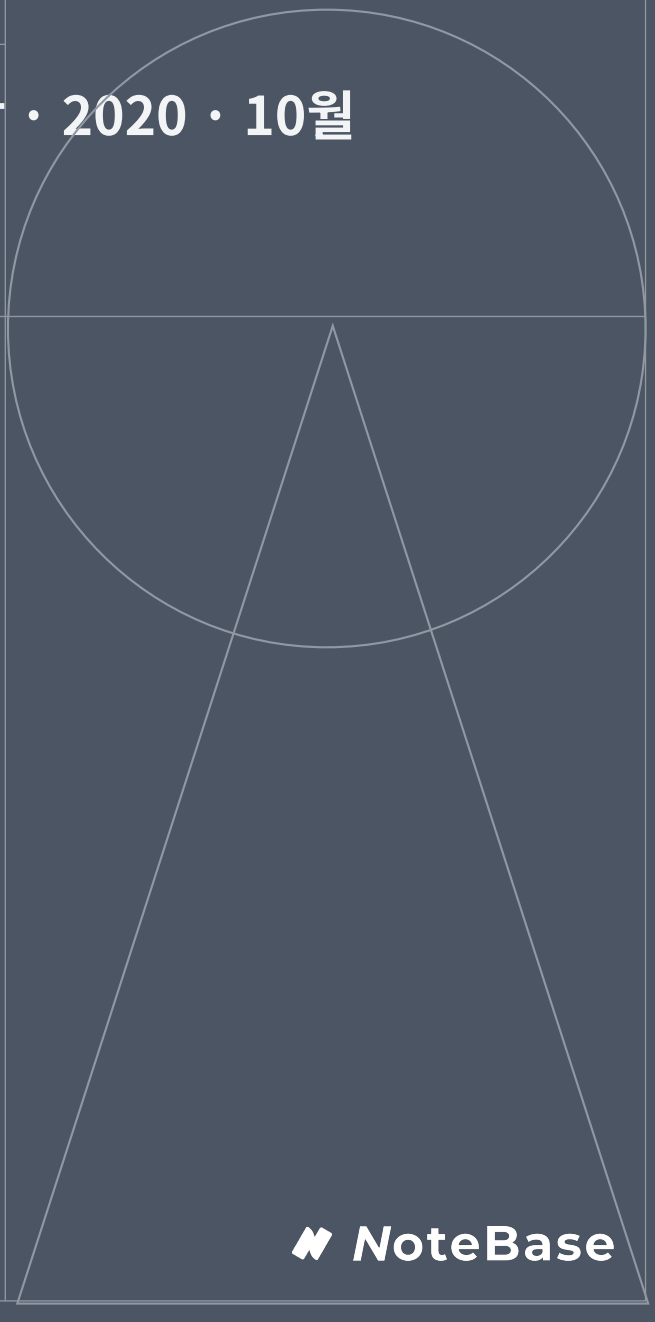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0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0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0 · 10월

문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으로서의 주제공원이 아닌 것은?

① 생태공원

② 방재공원

③ 묘지공원

④ 도시농업공원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열거하는 주제공원의 종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특정 목적과 주제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이다.

핵심 구분

법률상 주제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과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 생태공원은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명시적 열거에 없으므로 법률상 주제공원으로 바로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주제공원 목록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다.
틀린 표현: "생태공원"
올바른 표현: 법률상 명시된 주제공원은 묘지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등을 포함한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열거 유형이다.
2번 O: 방재공원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법률상 주제공원이다.
3번 O: 묘지공원은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4번 O: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명칭이 공원처럼 보인다고 모두 법률상 주제공원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익숙한 용어인 생태공원을 끼워 넣어 법률 조문에 실제로 열거된 유형과 일반적 이미지상의 공원 명칭을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분류 문제는 먼저 법률이 유형을 열거형으로 정하는지 확인한 뒤, 선지가 그 열거 목록에 직접 들어가는지를 본다. 이름이 그럴듯해 보여도 조문에 없으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제공원은 법률 열거형이다. 묘지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은 맞고 생태공원은 명시 목록이 아니다.

NoteBase

문 2. 공해에 가장 약한 수종은?

① Ginkgo biloba

② Salix babylonica

③ Abies koreana

④ Platanus occidentali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종별 내공해성을 비교하여 도시 공해에 가장 약한 수종을 고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내공해성 수종은 매연, 분진, 건조, 토양 다짐 같은 도시 스트레스를 비교적 잘 견디는 수종이다.
구상나무는 한랭한 고산 환경에 적응한 침엽수로 도시의 고온, 건조, 대기오염에 약한 편이다.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는 대표적인 내공해성 가로수로 분류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Ginkgo biloba는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는 매연과 분진에 강하고 도시 가로수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내공해성 수종이다. 틀린 표현은 '공해에 가장 약한 수종'이다. 올바르게는 '공해에 강한 편의 수종'이다.
2번 X: Salix babylonica는 수양버들이다. 수양버들은 습지 적응성이 크고 수변 식재에 많이 쓰이며, 이 보기들 가운데 구상나무처럼 공해에 가장 약한 수종으로 보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장 약한 수종'이다. 올바르게는 '③보다 공해 민감성이 낮은 수종'이다.
3번 O: Abies koreana는 구상나무이다. 구상나무는 서늘하고 청정한 환경에 적응한 고산성 침엽수이므로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 건조 스트레스에 약하다. 따라서 보기 중 공해에 가장 약한 수종으로 판단한다.
4번 X: Platanus occidentalis는 양버즘나무이다. 양버즘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도시 적응성이 좋아 대표적인 내공해성 가로수로 취급된다. 틀린 표현은 '공해에 가장 약한 수종'이다. 올바르게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수종'이다.

오답 포인트

수종명을 라틴명으로 제시하면 생태적 성격보다 이름 암기에 끌려 오답이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수변 수종인 수양버들과 도시 가로수인 은행나무, 양버즘나무를 함께 놓아 헷갈리게 하고, 실제로는 고산성 침엽수인 구상나무의 환경 민감성을 묻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종 문제는 먼저 고산성 침엽수인지, 도시 가로수로 흔한 내공해성 활엽수인지부터 구분한다. 고산성 침엽수이면 대체로 공해와 열, 건조에 약하고, 은행나무·양버즘나무처럼 도시 가로수로 오래 쓰인 수종이면 공해에 강한 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상나무는 고산성 침엽수라 공해에 약하고,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는 도시형 내공해 수종이다.

NoteBase

문 3.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상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지면적 4, 000m^2 이하의 탐방안내소

② 부지면적 6, 000m^2 이하의 야영장

③ 부지면적 300m^2 이하의 선착장

④ 부지면적 500m^2 이하의 야생동물관찰대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별 부지면적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시설 종류별 허용 상한면적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공원시설과 공원사업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역이다.

핵심 구분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는 최소한의 공원시설만 허용되며 시설별로 허용 면적 상한이 따로 정해진다.
탐방안내소는 4,000m^2 이하, 야영장은 6,000m^2 이하, 선착장은 300m^2 이하, 야생동물관찰대는 200m^2 이하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탐방안내소는 부지면적 4,000m^2 이하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시된 수치가 시행령상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O
야영장은 부지면적 6,000m^2 이하까지 허용된다. 공원자연보존지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야영장은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옳다.

③ O
선착장은 부지면적 300m^2 이하가 기준이다. 제시된 수치가 그대로 맞으므로 옳다.

④ X
야생동물관찰대의 허용 상한은 부지면적 500m^2 이하가 아니라 200m^2 이하이다. 숫자를 크게 바꾸어 놓은 선지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500m^2 이하"
올바른 표현: "200m^2 이하"

오답 포인트

야생동물관찰대처럼 규모가 작게 제한되는 시설의 면적을 다른 시설 기준과 뒤섞으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④는 보존지구의 엄격한 제한을 완화한 수치처럼 보이게 만들어 암기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자연보존지구 문제는 시설명이 나오면 곧바로 허용 여부와 면적 상한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보기 중 하나만 숫자를 키우거나 줄여 바꾼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명과 면적을 짝으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보존지구 면적 기준은 야영장 6,000, 안내소 4,000, 선착장 300, 야생동물관찰대 200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4. 18세기 영국에서는 왕실 소유의 정원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공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버큰헤드 공원(Birkenhead Park)

② 하이드 공원(Hyde Park)

③ 성 제임스 공원(St. James Park)

④ 리젠트 공원(Regent Park)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왕실 소유의 정원·사냥터를 일반에 개방한 영국 왕실 공원과 근대에 새로 조성된 시민공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왕실 정원 개방형 공원은 왕실 소유지였던 정원이나 사냥터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 공원이다. 버큰헤드 공원은 이런 유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근대 공공공원의 대표 사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버큰헤드 공원은 1847년에 개원한 근대 시민공원으로, 왕실 정원을 일반에 개방한 유형의 공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공원을 왕실 정원 개방형 공원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근대 공공공원의 대표 사례이다.
2번: O. 하이드 공원은 왕실 사냥터였던 부지가 일반에 개방된 대표적 런던 왕실 공원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3번: O. 성 제임스 공원은 왕실 궁정과 연결된 정원이 시민에게 개방된 공원으로, 왕실 정원 개방형 공원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4번: O. 리젠트 공원은 왕실 소유지에 조성된 런던의 왕실 공원 계열로 일반에 개방된 사례이므로 문제의 유형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버큰헤드 공원도 영국의 유명 공원이므로 하이드 공원, 성 제임스 공원, 리젠트 공원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구분 기준은 유명세가 아니라 공원의 출발 배경이며, 버큰헤드는 왕실 개방형이 아니라 근대 시민공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국 공원사 문제에서는 먼저 공원의 출발 주체를 본다. 왕실 소유 정원·사냥터를 시민에게 연 공원이면 왕실 공원 계열이고, 도시 행정이 시민 복지를 위해 새로 만든 공원이면 근대 시민공원 계열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하이드·성 제임스·리젠트는 왕실 공원, 버큰헤드는 근대 시민공원이다.

NoteBase

문 5.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형의 정원이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사찰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무로마찌(室町)시대 중기의 선종 사찰에 조영
• 물을 사용하지 않고 흰 모래로 바닥을 깔고 돌을 사용
• 좁은 공간에 대자연을 축소하여 상징적·추상적으로 표현

① 용안사(龍安寺), 대덕사(大德寺)
② 칭명사(稱名寺), 영보사(永保寺)
③ 평등원(平等院), 모월사(毛越寺)
④ 영복사(永福寺), 서방사(西芳寺)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무로마치 시대 선종 사찰의 고산수 정원과 정토식·지천계 정원을 대표 사찰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산수는 물을 직접 쓰지 않고 흰 모래와 돌로 산수 경관을 상징적·추상적으로 축소한 선종 사찰 정원이다.
정토식 정원은 연못과 중도, 당우 배치로 극락정토를 형상화한 정원이다.
지천계 정원은 실제 연못과 수공간을 중심으로 경관을 감상하는 정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용안사와 대덕사는 선종 사찰과 고산수의 결합을 대표하는 사례로 묶을 수 있다. 제시문의 '물 없이 흰 모래와 돌로 추상화'라는 단서와 정확히 맞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칭명사와 영보사를 고산수 정원 사례로 본 점이다. 칭명사는 연못 중심의 정토식 정원으로 알려져 있고, 영보사도 수공간을 갖춘 정원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는 두 사찰을 고산수 대표 예로 묶기 어렵다.
③ X: 틀린 부분은 평등원과 모월사를 고산수 사찰로 본 점이다. 실제로는 두 사찰 모두 정토식 정원의 대표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영복사와 서방사를 같은 고산수 사례로 묶은 점이다. 영복사는 정토식 정원 계열과 연결되고, 서방사는 이끼정원으로 유명하며 상·하단에 서로 다른 정원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둘을 제시문의 전형적 고산수 사찰로 함께 묶을 수 없다.

오답 포인트

선종 사찰이라는 말만 보고 모두 고산수로 묶거나, 유명 사찰 이름만 외워 두고 정원 양식까지 연결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평등원·모월사처럼 정토식 정원의 대표 사례를 고산수와 뒤바꾸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종 사찰', '무로마치 중기', '물을 쓰지 않음', '흰 모래와 돌', '상징적·추상적 표현'이라는 단서가 함께 나오면 고산수를 먼저 떠올리고, 대표 사찰을 용안사·대덕사 계열과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산수 = 선종 사찰 + 흰 모래·돌 + 용안사·대덕사이다.

NoteBase

문 6.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원직경 :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

② 지하고 :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③ 관목 :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

④ 초화류 :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상 수목·식물 관련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근원직경, 지하고, 관목, 초화류와 지피식물의 정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근원직경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 직경이다.
지하고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이다.
관목은 교목보다 낮고 지상부에서 여러 줄기로 갈라지는 수목이다.
초화류는 꽃이 좋은 초본류이고, 지피식물은 지표면 피복용 식물이다.

핵심 구분

「조경기준」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근원직경은 지표면 기준 직경이고, 지하고는 최하부 가지까지의 높이이다.
관목은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다간성 수목이다.
반면 초화류는 옥잠화·수선화·백합 등과 같이 개화 상태가 양호한 초본류이고, 잔디·맥문동처럼 지표면을 피복하는 식물은 지피식물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근원직경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 직경을 뜻하므로 선지의 설명이 정의와 일치한다.

② O
지하고는 수목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이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③ O
관목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이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④ X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은 초화류가 아니라 지피식물이다.
틀린 표현: "초화류: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
올바른 표현: "초화류는 옥잠화·수선화·백합 등과 같이 초본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이다."

오답 포인트

초화류와 지피식물은 모두 초본성 식물을 포함할 수 있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조경기준은 꽃의 관상성을 중심으로 한 식물은 초화류로, 지표면 피복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식물은 지피식물로 나누므로 ④와 같은 바꿔치기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형 문항은 핵심 용어와 설명의 대응쌍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지표면의 직경"은 근원직경, "가장 아래 가지까지의 높이"는 지하고, "다간성의 낮은 목본"은 관목, "꽃이 좋은 초본류"는 초화류, "지표면 피복용"은 지피식물로 대응시키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초화류는 꽃, 지피식물은 피복, 관목은 다간성, 지하고는 아래 가지 높이이다.

NoteBase

문 7. 꽃이 피는 계절이 가장 다른 수종은?

① Cercis chinensis

② Lagerstroemia indica

③ Cornus officinalis

④ Magnolia denudata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조경수목의 개화 시기를 비교하여 계절이 다른 수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ercis chinensis는 봄에 자주색 꽃이 잎보다 먼저 또는 거의 동시에 피는 박태기나무류이다.
Lagerstroemia indica는 한여름에 개화하는 배롱나무로, 다른 봄꽃 수종과 계절 축이 뚜렷이 다르다.
Cornus officinalis는 이른 봄에 노란 꽃이 먼저 피는 산수유이다.
Magnolia denudata는 잎이 나오기 전 봄에 큰 흰 꽃이 피는 백목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Cercis chinensis는 박태기나무로 봄에 꽃이 피므로 다른 봄 개화 수종과 같은 계절권에 속한다.
틀린 부분은 이 수종을 계절이 가장 다른 수종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봄꽃 수종으로 보아야 한다.

② O
Lagerstroemia indica는 배롱나무로 여름, 특히 한여름에 꽃이 오래 피는 대표 수종이다.
①, ③, ④가 모두 봄에 개화하므로 계절이 가장 다른 수종은 ②이다.

③ X
Cornus officinalis는 산수유로 잎보다 먼저 이른 봄에 꽃이 핀다.
틀린 부분은 이 수종을 여름 개화처럼 다른 계절군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이른 봄 개화 수종으로 정리한다.

④ X
Magnolia denudata는 백목련으로 봄에 잎보다 먼저 큰 꽃이 피는 수종이다.
틀린 부분은 이 수종을 다른 세 수종과 개화 계절이 가장 다르다고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봄 개화 수종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산수유는 이른 봄, 백목련과 박태기나무는 봄이라는 세부 시기 차이는 있으나 모두 봄 개화라는 큰 계절 범주에 묶인다. 이른 봄과 봄을 서로 다른 계절처럼 과장하면 ③이나 ④로 흔들릴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목 학명 문제가 나오면 먼저 국명과 대표 형질을 연결한 뒤, 개화 시기를 봄꽃과 여름꽃처럼 큰 계절 단위로 먼저 나누어 판단한다. 봄에 피는 수종이 셋이고 여름에 피는 수종이 하나이면 그 하나가 정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배롱나무는 여름, 박태기나무·산수유·백목련은 봄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 2019)」 상 일반식재기반 식재에서 식재구덩이 굴착 시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몇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식재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반식재기반 식재에서 식재구덩이 위치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칙적으로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소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장물로 인해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상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암반, 구조물, 매설물은 대표적인 지장물이다. 이런 지장물 때문에 굴착 자체가 불가능하면 식재구덩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지하수 용출 등으로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치 조정이 허용된다. 식재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O
표준시방서는 경관상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위치 조정 사유로 본다. 따라서 경관 개선 목적의 조정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식재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이다. 표준시방서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굴착 불가, 생육 불가, 경관상 필요이지 공기 단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식재공사 기간 단축만을 이유로 식재구덩이 위치를 조정할 수는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를 함께 보면 둘 다 실무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준은 시공 편의가 아니라 식재 가능성과 현장 여건, 경관 타당성이다. 특히 ④의 '공사 기간 단축'은 시공자 편의에 가까운 사유이므로 예외 사유 목록에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구덩이 위치 조정 문제는 먼저 원칙이 설계도서 위치라는 점을 잡고, 예외가 식재 자체의 불가능, 굴착 자체의 불가능, 경관상 필요처럼 객관적 사유인지 본다. 시공 편의나 공기 단축처럼 관리상 편의만을 이유로 한 선택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위치 조정 예외는 지장물, 생육 불가, 경관상 필요이고 공기 단축은 예외가 아니다.

NoteBase

문 9. <보기>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는?

<보기>
실제 공정과 관련된 작업은 행해지지 않으나 작업 상호 간의 연관관계만 나타내는 명목상 작업으로 선행과 후속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표현방법은 파선의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실제 작업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0(zero)이다.

① 결합점(node, event)
② 결합점시각(event time)
③ 더미(dummy)
④ 여유시간(floa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네트워크 공정표 용어 중 실제 작업은 없고 선행·후속 관계만 표시하며 소요시간이 0인 더미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결합점(node, event)은 작업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사건의 점이다.
결합점시간(event time)은 어떤 결합점이 발생하는 시점을 뜻하는 시간값이다.
더미(dummy)는 실제 작업 내용은 없고 작업 간 선후관계만 연결하는 명목상 작업이며 소요시간은 0이다.
여유시간(float)은 작업이 전체 공정 지연 없이 늦어질 수 있는 허용시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결합점은 네트워크에서 작업의 시작·완료 시점을 나타내는 점이다. 제시문처럼 파선 화살표로 표시되는 명목상 작업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작업 상호 간의 연관관계만 나타내는 명목상 작업'이고, 올바르게는 '작업의 경계가 되는 사건의 점'이다.
2번 X: 결합점시간은 결합점이 발생하는 시간값을 뜻한다. 실제 작업 없이 선후관계만 나타내는 활동을 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명목상 작업'이고, 올바르게는 '결합점의 발생 시각'이다.
3번 O: 더미는 실제 공정 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선행과 후속의 관계만 표시하는 가상 활동이다. 보통 파선 화살표로 나타내며 소요시간이 0이므로 제시문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4번 X: 여유시간은 공정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지연될 수 있는 시간 여유이다. 활동 자체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실제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명목상 작업'이고, 올바르게는 '허용 가능한 지연시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결합점, 결합점시간, 더미, 여유시간을 모두 공정표 기본 용어로만 외우면 기능이 섞여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파선 화살표', '명목상 작업', '소요시간 0'이라는 더미의 핵심 표지를 한꺼번에 제시해 함정을 줄였는데도, 점·시간·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용어로 오인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실제 작업 수행 여부를 먼저 본다. 실제 작업이 없고 선후관계만 연결하며 기간이 0이면 더미이고, 점을 말하면 결합점, 시각을 말하면 결합점시간, 지연 가능 시간을 말하면 여유시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더미는 가상 활동, 기간 0, 관계 표시이다.

NoteBase

문 10.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산림청장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다.

② 전국을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5만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작성 주체, 구분 체계, 표시 축척, 열람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주체와 숫자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 지도이다.

핵심 구분

생태·자연도는 산림청장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상 주무장관이 작성한다. 또한 5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2·3등급권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5만분의 1이 아니라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한다. 작성안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생태·자연도의 작성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본 점이 틀렸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주무장관이 작성한다.
- 틀린 표현: "산림청장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다."
- 올바른 표현: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주무장관이 작성한다."

② X
- 생태·자연도를 전국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는 점이 틀렸다. 법은 1등급권역, 2등급권역, 3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 틀린 표현: "전국을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올바른 표현: "생태·자연도는 1·2·3등급권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③ X
- 표시 축척을 5만분의 1로 적은 점이 틀렸다. 법상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 틀린 표현: "5만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O
- 생태·자연도 작성안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14일 이상 열람 절차를 거친다는 취지의 ④는 옳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작성 주체와 숫자 기준을 뒤섞어 놓은 함정형 문항이다. 특히 5개의 등급, 5만분의 1, 산림청장처럼 익숙한 숫자나 기관명을 끼워 넣어 오답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자연도 문제는 먼저 주체가 누구인지, 다음으로 등급 수와 축척 같은 숫자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작성안 공고와 열람 기간 같은 절차 규정을 대조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생태·자연도는 주무장관 작성, 1·2·3등급권역과 별도관리지역 구분, 2만5천분의 1 지도 표시, 14일 이상 열람 절차이다.

NoteBase

문 11. 홀(Hall)이 언급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에 대한 적정 치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0~1.5피트(약 0~45cm)

② 1.5~4피트(약 45cm~1.2m)

③ 4~12피트(약 1.2m~3.6m)

④ 12피트 이상(약 3.6m 이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홀(Hall)의 대인거리 구분 중 사회적 거리의 범위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홀의 근접학에서 거리는 친밀적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로 구분된다.
사회적 거리는 업무적 접촉이나 격식을 갖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리로 약 4~12피트, 즉 약 1.2~3.6m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0~1.5피트는 친밀적 거리이다. 아주 가까운 신체 접촉이나 가족, 연인처럼 밀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범위이므로 사회적 거리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거리'이고, 올바르게는 '친밀적 거리'이다.
② X: 1.5~4피트는 개인적 거리이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 적절한 거리이므로 사회적 거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거리'이고, 올바르게는 '개인적 거리'이다.
③ O: 4~12피트는 사회적 거리이다. 사무적 관계나 공식적 대면에서 유지되는 범위로 홀의 사회적 거리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12피트 이상은 공적 거리이다. 강연, 발표, 공적 연설처럼 다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리이므로 사회적 거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거리'이고, 올바르게는 '공적 거리'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거리 범위 자체보다 거리 명칭을 서로 바꾸어 제시한 점에 있다. 특히 ②의 개인적 거리와 ③의 사회적 거리는 모두 일상 대인관계에서 쓰여 혼동되기 쉬우나, 4피트를 넘으면 사회적 거리로 넘어간다는 기준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홀의 대인거리 문제는 숫자를 외우기보다 네 구간의 순서를 먼저 잡으면 판단이 쉬워진다. 0~1.5피트는 친밀, 1.5~4피트는 개인, 4~12피트는 사회, 12피트 초과는 공적으로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홀의 거리 구분은 친밀-개인-사회-공적 순서이며 사회적 거리는 4~12피트이다.

NoteBase

문 12. 가해습성에 따른 조경수의 해충분류 중 흡즙성 해충으로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소나무좀, 하늘소

② 회양목명나방, 미국흰불나방

③ 벚나무잎응애, 솔껍질깍지벌레

④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 해충을 가해습성으로 구분할 때 흡즙성 해충과 식엽성·천공성 해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흡즙성 해충은 식물의 잎·줄기·가지에서 즙액을 빨아 먹는 해충이다. 잎응애, 깍지벌레류가 대표적이다.
식엽성 해충은 잎을 갉아 먹는 해충이다. 명나방, 흰불나방류가 대표적이다.
천공성 해충은 줄기나 목질부를 뚫고 들어가 가해하는 해충이다. 좀류, 하늘소류가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소나무좀과 하늘소는 둘 다 줄기나 목질부를 뚫거나 갉아먹는 천공성 해충이다. 틀린 표현은 이들을 흡즙성 해충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소나무좀, 하늘소는 흡즙성이 아니라 천공성 해충이다.
2번 X: 회양목명나방과 미국흰불나방은 잎을 가해하는 식엽성 해충이다. 틀린 표현은 이들을 흡즙성 해충으로 묶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두 종 모두 잎을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이다.
3번 O: 벚나무잎응애는 잎의 즙액을 빨아 피해를 주고, 솔껍질깍지벌레도 수피와 가지에서 즙액을 흡수한다. 두 종 모두 흡즙성 해충이므로 정답이다.
4번 X: 솔껍질깍지벌레는 흡즙성 해충이 맞지만 소나무좀은 흡즙성이 아니라 천공성 해충이다. 틀린 표현은 소나무좀을 흡즙성 해충과 함께 같은 부류로 놓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솔껍질깍지벌레는 흡즙성, 소나무좀은 천공성 해충이다.

오답 포인트

깍지벌레, 잎응애처럼 즙액을 빠는 해충과 좀류·하늘소류처럼 조직을 뚫는 해충을 이름만 보고 섞으면 틀린다. 4번은 앞의 솔껍질깍지벌레가 맞아서 전체도 맞아 보이기 쉽지만, 한 종이라도 다른 가해습성이면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해충이 식물체를 어떻게 가해하는지부터 본다. 즙을 빨면 흡즙성, 잎을 갉아 먹으면 식엽성, 줄기나 목질부를 뚫으면 천공성으로 판단하면 된다. 조합형 선지는 두 해충이 모두 같은 부류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잎응애·깍지벌레는 흡즙성, 명나방·흰불나방은 식엽성, 좀·하늘소는 천공성이다.

문 13. <보기>의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어골형은 놀이터, 소규모 운동장 등과 같은 소규모의 평탄한 지역에 적합하며, 배수가 균일하게 요구되는 곳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관 배치유형이다. 집수관을 중앙에 경사지게 설치하고, 이 집수관에 비스듬히 흡수관을 설치하는데 보통 이들의 길이는 ㉠_____ 이하로 하고, 집수관과 ㉡_____ 이하의 교각을 가져야 배수효과가 좋다.

① ㉠: 15m, ㉡: 60°
② ㉠: 20m, ㉡: 60°
③ ㉠: 25m, ㉡: 45°
④ ㉠: 30m, ㉡: 4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골형 배수관 배치의 적용 대상과 수치 기준인 흡수관 길이와 집수관 교각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골형은 중앙의 집수관에 여러 흡수관을 비스듬히 연결하여 평탄한 소규모 부지의 배수를 고르게 처리하는 형식이다.
수치 기준은 보통 흡수관 길이 30m 이하, 집수관과의 교각 45° 이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15m"는 틀린 표현이다. 어골형의 보통 기준은 흡수관 길이 30m 이하이므로 너무 짧게 잡은 수치이다. ㄴ의 "60°"도 틀린 표현이다. 교각은 45° 이하로 두어야 한다.
② X: ㄱ의 "20m"는 기준 수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흡수관 길이 30m 이하이다. ㄴ의 "60°"도 어골형의 기준보다 커서 올바르게는 45° 이하이다.
③ X: ㄴ의 "45°"는 맞지만 ㄱ의 "25m"가 틀린 표현이다. 어골형에서 묻는 보통 기준은 25m 이하가 아니라 30m 이하이다.
④ O: 흡수관 길이 30m 이하, 집수관과의 교각 45° 이하는 어골형 배수관 배치의 보통 기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어골형의 형태와 적용 대상만 기억하고 수치 기준을 흐리게 외우면 ③처럼 각도만 맞는 선지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은 "30m"와 "45°"를 동시에 기억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골형이 평탄한 소규모 부지에 쓰이는 중앙 집수관형 배치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다음 수치 기준을 흡수관 30m 이하, 교각 45° 이하로 대입하면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어골형은 평탄지 소규모 배수, 수치 기준은 30m와 45°이다.

NoteBase

문 14. 구조체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아 자중이 줄어든 만큼 옹벽 배면의 기초 저판 위의 흙의 무게를 보강하여 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인 옹벽은?

① 중력식 옹벽
② 캔틸레버 옹벽
③ 부축벽 옹벽
④ 조립식 옹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철근콘크리트 옹벽 형식 중 자중 확보 방식과 배면토 활용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력식 옹벽은 벽체 자체의 큰 자중으로 토압에 저항하는 옹벽이다. 키워드는 큰 단면과 자중 의존이다.
캔틸레버 옹벽은 비교적 얇은 철근콘크리트 벽체와 저판이 캔틸레버처럼 작용하고, 뒤꿈치판 위 흙의 무게까지 이용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옹벽이다. 키워드는 작은 부재량과 배면측 저판 위 흙의 중량이다.
부축벽 옹벽은 캔틸레버 옹벽에 부축을 두어 벽체와 저판을 구조적으로 보강한 형식이다. 키워드는 부축 보강과 고옹벽 적용이다.
조립식 옹벽은 프리캐스트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공 형식이다. 키워드는 공장 제작 부재와 현장 조립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중력식 옹벽은 구조체의 큰 체적과 자중 자체로 토압을 버티는 형식이다. 틀린 부분은 "구조체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아"와 "기초 저판 위의 흙의 무게를 보상"이다. 올바르게는 중력식 옹벽은 벽체를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한다.
② O: 캔틸레버 옹벽은 철근콘크리트 벽체와 저판으로 이루어져 단면은 비교적 작지만, 배면측 저판인 뒤꿈치판 위에 놓이는 흙의 무게를 이용해 전도와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높인다. 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부축벽 옹벽의 핵심은 배면 또는 전면의 부축으로 벽체와 저판을 보강하여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줄이는 데 있다. 틀린 부분은 "흙의 무게를 보상하여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을 대표 특징처럼 제시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부축벽 옹벽은 캔틸레버 옹벽을 부축으로 보강한 고옹벽용 형식이다.
④ X: 조립식 옹벽은 부재 제작과 시공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틀린 부분은 발문의 구조적 안정 원리를 조립식 옹벽의 본질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조립식 옹벽은 프리캐스트 부재를 조립하여 시공성을 높인 옹벽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중력식 옹벽과 캔틸레버 옹벽을 모두 "흙막이 옹벽"으로만 기억하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배면의 기초 저판 위 흙의 무게"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벽체 자체 자중이 아니라 뒤꿈치판 위 흙을 함께 이용하는 캔틸레버 옹벽을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옹벽 문제에서 안정 원리를 먼저 본다. 벽체 자체의 무게로 버티면 중력식이고, 얇은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배면측 저판 위 흙의 중량까지 이용하면 캔틸레버 옹벽이며, 여기에 부축 보강이 붙으면 부축벽 옹벽이다.

암기 포인트

중력식은 벽체 자중, 캔틸레버는 뒤꿈치판 위 흙중량, 부축벽은 부축 보강, 조립식은 부재 조립이다.

NoteBase

문 15. 공사비 산정방식 중 공사비 산출 기준에 따른 구분에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격을 형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조사하여 이것을 각 요소별로 계산하여 집계해 가는 방식

② 건설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적산하는 방식

③ 입찰자(시공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입찰 시 제시한 단가를 발주기관별로 축적하여 향후 유사공사 발주 시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단가로 활용하는 방식

④ 적상방식과 배분방식의 혼합 방식으로서 계획단계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근거로 개략적인 총 공사비 및 공종별 공사비 범위를 설정하는 배분방식을 취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적상방식을 수행한 뒤 각 단계별로 수정하여 예산에 접근하는 방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사비 산정방식 중 거래실례가격 방식이 무엇인지와 적산방식, 실적단가 활용 방식, 혼합형 비용계획 방식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래실례가격 방식은 건설시장에서 실제 형성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적산방식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처럼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항목별로 산출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실적단가 활용 방식은 과거 입찰·계약 과정에서 축적된 단가를 기준단가로 삼는 방식이다. 계획단계의 배분과 실시설계단계의 적산을 결합하는 방식은 혼합형 비용계획 방식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격을 형성하는 각 요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요소별로 계산·집계하는 설명은 적산방식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거래실례가격 방식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원가 요소를 항목별로 산출하는 적산방식이다.

② O
건설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적산한다는 설명이 거래실례가격 방식의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입찰자나 시공자가 제시한 단가를 축적하여 이후 유사공사의 기준단가로 활용하는 설명은 실적단가 축적 방식 또는 실적공사비 방식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시장의 거래가격 대신 입찰 시 제시된 축적 단가를 거래실례가격 방식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활용해야 한다.

④ X
계획단계에서는 배분방식,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적산방식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예산에 접근하는 설명은 혼합형 비용계획 방식의 내용이다.
틀린 표현은 이 설명을 거래실례가격 방식과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배분방식과 적산방식을 단계별로 결합한 비용계획형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이라는 공통어 때문에 ①의 요소별 산출, ③의 축적 단가, ②의 실제 거래가격을 한 범주로 섞기 쉽다. 이 문항은 가격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면 바로 정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사비 산정방식을 보면 먼저 가격의 출처를 확인하면 된다. 시장에서 실제 성립한 거래가격이면 거래실례가격 방식이고,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쪼개 더하면 적산방식이며, 과거 실적단가를 축적해 쓰면 실적단가 활용 방식이고, 단계별로 배분과 적산을 섞으면 혼합형 비용계획 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거래실례가격은 시장거래, 적산은 요소합산, 실적공사비는 축적단가라는 구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6. 목재의 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cupping : 보통 판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형적인 변형으로 수피 쪽을 향해 컵모양으로 변한다.

② twisting : 각재나 판재 등이 섬유방향으로 구부러진다.

③ crooking : 각재나 판재 등이 두께면에서 길이방향으로 휘어진다.

④ 표면건열 : 목재 내부의 수축이 전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를 때 표면조직이 인장력에 의해 갈라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목재의 대표적 변형인 cupping, twisting, crooking, 표면건열의 형태와 발생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upping은 판재가 폭 방향의 수축 차이로 수피 쪽을 향해 컵 모양으로 오목해지는 변형이다. twisting은 부재가 길이축을 따라 비틀려 네 모서리가 한 평면에 놓이지 않는 변형이다. crooking은 각재나 판재가 두께면에서 길이방향으로 휘는 변형이다. 표면건열은 수축이 균일하지 않아 표면에 인장응력이 생기면서 갈라지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cupping은 판재에서 흔히 보이는 외형적 변형으로, 폭 방향 수축 차이 때문에 수피 쪽을 향해 컵 모양으로 변한다는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섬유방향으로 구부러진다"이다. twisting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휘는 변형이 아니라 길이축을 중심으로 비틀려 뒤틀리는 변형이다. 올바르게는 "각재나 판재 등이 길이축을 따라 비틀려 한 평면을 이루지 않는다"이다.
③ O: crooking은 각재나 판재가 두께면에서 길이방향으로 휘는 변형을 말하므로 설명이 맞다.
④ O: 표면건열은 목재 내부의 수축이 전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달라 표면조직에 인장응력이 생길 때 나타나는 갈라짐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twisting과 crooking은 모두 길이방향 변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twisting은 비틀림이고 crooking은 한쪽으로 휘는 변형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또한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선지 판단이 뒤집히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재 변형 문제는 먼저 변형의 모습이 휨인지 비틀림인지 갈라짐인지로 나눈다. 폭 방향으로 컵 모양이면 cupping, 길이축을 따라 비틀리면 twisting, 길이방향으로 한쪽으로 휘면 crooking, 표면이 갈라지면 표면건열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cup은 폭 방향 오목, twist는 비틀림, crook은 길이 휨, check는 표면 갈라짐이다.

NoteBase

문 17. 조경공간 직영관리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 대응이 가능

② 관리자의 취지 명확

③ 관리 규모가 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④ 임기응변의 조처 가능(유연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공간 직영관리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장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영관리는 관리 주체가 자기 인력과 조직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정 차이축은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관리 의도의 직접 반영이다. 키워드는 긴급 대응, 취지 명확, 유연성이다.
위탁관리는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결정 차이축은 전문성 활용과 대규모 시설 운영 효율이다. 키워드는 전문성, 대규모, 효율성이다.
직영은 빠르고 유연하지만 대규모 운영 효율에서는 불리할 수 있고, 위탁은 대규모 시설과 전문관리에서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직영관리는 현장 인력이 내부 조직 안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어 돌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② O
직영관리는 관리 주체와 실행 주체가 가까워 관리자의 운영 의도와 관리 취지가 현장에 직접 반영되기 쉽다.
③ X
틀린 부분은 "관리 규모가 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이다.
직영관리는 대규모 시설일수록 인력, 장비, 전문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효율이 떨어지기 쉽다.
올바르게는 대규모 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위탁관리나 전문관리 방식의 장점에 가깝다.
④ O
직영관리는 의사결정 단계가 짧아 현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의 조치를 하거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직영관리의 "신속성·유연성"과 위탁관리의 "대규모·효율성"을 서로 바꾸어 외우면 ③에 흔들리기 쉽다. 특히 "효율적"이라는 표현만 보고 장점처럼 느끼기 쉽지만, 대규모 시설의 효율성은 보통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위탁관리 쪽의 장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긴급 대응, 관리 의도 직접 반영, 현장 유연성이 나오면 직영관리의 장점으로 본다. 반대로 대규모 시설의 조직적 운영, 전문인력 활용, 규모의 효율이 나오면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직영은 빠름·명확·유연, 위탁은 대규모·전문·효율이다.

NoteBase

문 18. 결핍 시 <보기>의 현상을 초래하는 양분은?

<보기>
활엽수의 경우 잎은 황록색으로 변하며, 잎의 크기는 정상적인 잎보다 다소 크기가 작고 두껍다. 조기에 낙엽 현상을 보이며 복엽의 경우 정상적인 잎보다 수가 적다. 눈(shoot)의 크기는 지름이 다소 짧아지고 작으며, 적색 또는 적자색을 띤다. 침엽수의 경우 침엽이 짧고 황색을 띤다. 개엽상태는 다소 빈약하다. 수관의 외부는 상부의 경우 정상적으로 녹색을 띠나 하부의 경우는 황색을 띤다.

① 질소(N)
② 인(P)
③ 칼륨(K)
④ 마그네슘(M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인 결핍 증상을 보고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질소: 엽록소와 단백질 형성에 많이 쓰이는 이동성 양분이다 / 구별축: 결핍 시 오래된 잎과 수관 하부부터 전반적 황화와 생육 약화가 나타난다 / 키워드: 전체 황화, 조기 낙엽, 하부 먼저
인: 에너지 대사와 뿌리 발달에 관여하는 이동성 양분이다 / 구별축: 결핍 시 암녹색 또는 자색화와 생육 지연이 두드러진다 / 키워드: 암녹색, 자색, 생육지연
칼륨: 기공 조절과 효소 활성에 관여하는 이동성 양분이다 / 구별축: 결핍 시 잎 가장자리와 잎끝의 황화·갈변·고사가 대표적이다 / 키워드: 엽연황화, 엽연고사
마그네슘: 엽록소 중심 원소인 이동성 양분이다 / 구별축: 결핍 시 오래된 잎의 잎맥 사이는 황화되고 잎맥은 비교적 녹색으로 남는다 / 키워드: 엽맥간 황화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질소 결핍은 잎이 작아지고 황화하며 조기 낙엽과 생육 불량이 함께 나타난다.
질소는 체내 이동성이 커서 오래된 잎과 수관 하부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드러나므로 보기의 하부 황화와 잘 맞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인 결핍을 보기의 전반적 황화와 조기 낙엽 양상에 대응시킨 점이다.
실제로 인 결핍은 잎이 암녹색 또는 자색을 띠고 생육이 늦어지는 양상이 중심이며, 질소 결핍처럼 수관 하부의 뚜렷한 황화가 대표 증상은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칼륨 결핍을 잎 전체의 황화와 왜화 중심으로 본 점이다.
실제로 칼륨 결핍은 잎 가장자리와 잎끝의 황화, 갈변, 고사가 두드러지며 엽연 소각상 증상으로 구별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마그네슘 결핍을 보기처럼 잎 전체가 누렇게 되는 전반적 황화로 본 점이다.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은 오래된 잎의 잎맥 사이가 먼저 황화되고 잎맥은 비교적 녹색으로 남는 엽맥간 황화가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적색 또는 적자색'만 보면 인 결핍으로 기울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잎의 전반적 황화, 조기 낙엽, 수관 하부 황색처럼 질소 결핍을 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동성 양분 결핍은 오래된 잎과 하부부터 본다. 전체적으로 누렇게 약해지면 질소, 암녹색·자색화가 중심이면 인, 잎 가장자리가 마르면 칼륨, 잎맥 사이는 누렇고 잎맥은 남으면 마그네슘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질소는 전체 황화와 하부 먼저, 인은 암녹색·자색, 칼륨은 엽연 마름, 마그네슘은 엽맥간 황화이다.

NoteBase

문 19. 조경수 전정(剪定)에 관한 기본 원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로수는 여름철의 태풍을 대비하여 수형을 축소시킨다.

② 이식한 조경수는 원활한 호흡과 성장을 위해 1년 간은 전정하지 않는다.

③ 유실수는 영양생장을 조정하여 생식생장으로 유도한다.

④ 철쭉류는 꽃이 지자마자 만들고자 하는 수형으로 자른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로수, 이식수, 유실수, 철쭉류의 전정 목적과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로수 전정은 통행 안전, 수형 유지, 풍해 경감을 위해 수관을 조절하는 전정이다.
이식수 전정은 이식으로 줄어든 뿌리와 지상부의 균형을 맞추어 활착을 돕는 전정이다.
유실수 전정은 햇빛과 수세를 조절하여 꽃눈 형성과 결실을 유도하는 전정이다.
철쭉류 전정은 다음 해 꽃눈이 생기기 전에 개화 직후 수형을 다듬는 화후전정이 기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로수는 강풍과 태풍 때 가지 파손과 도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관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수형을 축소한다.
풍압을 줄이는 방향의 전정 원리에 맞는 진술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1년 간은 전정하지 않는다"이다.
이식한 조경수는 뿌리가 일부 손실된 상태이므로 손상지, 허약지, 과다한 지상부를 정리하여 지상부와 뿌리의 균형을 맞추는 전정이 필요하다. 과도한 강전정은 피하더라도 무전정이 원칙은 아니다.

③ O
유실수는 가지 수와 세력을 조절하여 영양생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꽃눈 형성과 결실이 잘 되도록 생식생장 쪽으로 유도한다. 유실수 전정의 대표 목적에 해당한다.

④ O
철쭉류는 다음 해 꽃눈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되므로 꽃이 진 직후에 전정하는 것이 맞다. 늦게 자르면 다음 해 꽃눈을 함께 제거하게 되므로 화후전정이 원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식수 전정을 현대 수목관리의 "과도한 강전정 지양"과 혼동하면 ②를 맞는 말처럼 보기 쉽다. 이 문항은 강전정을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식 직후 전정을 전혀 하지 않느냐를 묻고 있으므로, "1년간 무전정"이라는 절대 표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정 문제는 수종과 목적을 먼저 연결하면 풀린다. 이식수는 활착을 위한 균형 조절, 유실수는 결실 유도, 철쭉류는 개화 직후 전정, 가로수는 안전과 풍해 경감으로 정리하면 된다. 선지에 "항상", "전혀 하지 않는다"처럼 절대 표현이 나오면 우선 의심하는 것이 맞다.

암기 포인트

이식수는 활착 균형, 유실수는 결실 유도, 철쭉은 꽃 진 직후 전정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에서 설명하는 몰(mall)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개인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통과교통의 속도와 차량접근을 제한하는 몰(mall)

① 풀 몰(full mall)
② 트랜싯 몰(transit mall)
③ 세미 몰(semi mall)
④ 하프 몰(half mall)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행자 몰의 유형을 차량 허용 범위와 교통 통제 방식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풀 몰은 차량 통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완전 보행자 몰이다.
트랜짓 몰은 일반 승용차는 배제하고 버스·전차 등 대중교통의 통행은 허용하는 몰이다.
세미 몰은 개인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고 통과교통의 속도와 차량 접근만 제한하는 몰이다.
하프 몰은 가로의 일부만 보행자 공간으로 바꾸고 나머지 일부는 차량 통행을 유지하는 부분 보행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풀 몰"이다. 풀 몰은 차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이므로 개인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제시문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개인차량을 완전히 막지 않고 속도와 접근만 제한하는 유형이 세미 몰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트랜짓 몰"이다. 트랜짓 몰은 일반 차량보다 대중교통 통행 허용이 핵심인 형태이므로 개인차량 통행을 일부 허용하는 제시문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개인차량 통행을 일부 허용하면서 통과교통을 억제하는 유형이 세미 몰이다.
③ O: 개인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통과교통의 속도와 차량 접근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세미 몰의 정의와 일치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하프 몰"이다. 하프 몰은 가로의 일부만 보행자화하고 일부는 차량 통행을 남겨 두는 공간 구성 방식이지, 차량 접근과 통과교통 속도를 제한하는 운영 개념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은 세미 몰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세미 몰과 하프 몰은 모두 차량을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세미 몰은 교통 운영 방식의 구분이고, 하프 몰은 가로 단면을 부분 보행화한 공간 구성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몰 유형 문제는 먼저 차량을 전면 금지하는지, 대중교통만 허용하는지, 개인차량을 일부 허용하되 속도와 접근만 제한하는지를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세미 몰은 개인차량 일부 허용과 속도·접근 제한, 트랜짓 몰은 대중교통 허용, 풀 몰은 완전 보행화로 정리된다.

NoteBase